

다산포럼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순창 피노리에서 서울로 압송된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 전봉준은 1895년 2월 9일, 첫 번째 심문을 받는다. 심문관이 전봉준에게 학정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데 왜 봉기했는가를 묻자 전봉준은 "많은 사람들이 원통하고 한탄하는 까닭으로 백성을 위하여 해를 제거하고자 한 것"이라고 답했다. 심문관이 "고부 기포 당시 동학이 많은가 원망하는 백성이 많은가?"라고 물었을 때, 그는 "원민(怨民)과 동학이 합하였으나 동학은 적고 원민이 많았다"고 답하였다. 2월 11일 두 번째 심문이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이 동학의 직접 임업을 분명히 밝히고 순화중·최경선 등 다른 동학 접주들을 언급했다. 모두 전봉준 공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를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지난 5월 18일 파리에서 열린 제216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되었다. 이번에 등재된 185점의 기록물은 동학 농민군이 생산한 회고록과 일기, 유생 등이 생산한 각종 문집, 그리고 조선 관리와 진압군이 생산한 각종 보고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런 편지도 있다. "나라가 환난에 처하면

동학 농민들의 목소리를 기억하기 위하여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네. ... 우리가 왜군과 더불어 오랫동안 싸운 것은 나라에 입은 은혜를 갚고자 함이라네." 동학 농민군으로 참여한 유광화가 집에 있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이다. 또 다른 목소리도 있다. "오늘 나 주옥으로 오니 도시락이 끊어지고 노자 한 품 없어 우선 굶어 죽게 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오. 돈 300냥이 오면 어진 사람 만나 살 묘책이 있어 급히 사람을 보내니 어머니 불효한 자식을 급히 살려 주시오." 농민군으로 참여하였다가 체포된 한달문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이다. 유광화와 의연함이나 한달문의 다급한 마음이 생생하게 보이는 듯하다.

2015년 6월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다시피 한 역사적 대사건에 관한 기록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적게 남아 있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돌이켜보면, 20세기 한국사는 동학 농민군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1894년 동학농민군이 공주 우금지에서, 금구에서, 장흥 석대들에서 일본군과 관군에게 수많은 생명을 잃고 패주했을 때, 이들은 '동비'라고 불리는 폭도로 간주되었으므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신했고, 변성명을 했고, 또 침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이들의 침묵은 장기 지속의 구조로 변했다. 동학이 천도교로 변하고 3·1 운동을 주도하는 힘으로 작용했지만, 동학 농민군들의

경험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1945년 해방이 되어 50년만에 자신들의 경험을 말할 수 있게 되었지만,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가 이런 기회를 박탈했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된 1960년대에도 체계적인 구술 채록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학혁명 100주년을 맞으면서 본격화된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은 110주년이 된 2004년에 비로소 특별법으로 결실을 맺었지만, 1894년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릴 수는 없었다. 이런 연유로 한국 근대사가 기억과 기록의 세계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침묵과 망각의 세계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유네스코는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보존해야 할 기록 유산을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2년마다 지정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자유, 평등, 인권의 가치를 지향했던 동학 농민군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보존하고 확산하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물질 문화 뿐 아니라 정신 문화 또한 우리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자신임을 깨우쳐준다. 이번에 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함께 4·19혁명 기록물 1019점, 그리고 북한에서 신청한 '혼천전도'도 등재 결정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18종, 북한은 2종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이루어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민족 문화의 공통 유산의 경우 남북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기록 유산을 발굴하여,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확대해 나가면서 남북간 문화적 협력도 함께 진전되기를 기원한다.

꿈꾸는 2040



김선남 위민연구원 연구원·변호사

2022년 12월경 강동 주택을 1139채 보유한 임대인, 일명 '빌라왕' 김 씨가 사망하면서 200명이 넘는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음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강동 전세'란 전셋값이 매달값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이다. 보통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아 여러 집을 사두는 '깡 투자' 같은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보다 집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은 책임 지지 않고 그냥 경매로 넘겨 버리면서 발생한다.

유례없이 전국 곳곳에 발생한 전세 사기 강동 전세 피해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건물 소유자, 부동산 중개업자, 감정평가사 등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조적적으로 가담한 것이 문제이다. 세입자들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확인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여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강동 전세 사기범들은 세입자들이 건물 소유주의 재무 건전성, 주택 보유수, 전세 상황들

'깡통 전세' 피해, 남의 문제가 아니다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렸다.

전세 사기 유형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여 주택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미국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 담보 대출자에 대한 채무 조정, 경매권을 유예하여 한계 차주나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한국 정부도 2007년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도 임대주택 매입 후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충분히 그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전세 대출, 전세 보증금 확대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임대인들의 임대주택 매입을 지원함으로써 개별 주택별로 일어난 강동 전세, 전세 사기 규모를 수백~수천 채 규모로 키운 잘못이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구제는 정부의 개입 없이 힘들다. 우리나라 주택 경매의 경우 배당 순위는 ①경매 집행 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 ②소액 임차 보증금 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③당해세 집행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④저당권·전세권에 의한 담보되는 채권이다.

현재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적으로 건물 소유자의 채산 내역 조회, 건물 보유 수량 조회 등 예방 대책 그리고 피해자들의 대출 연장, 대출 전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 구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대책 이외에 정부가 기금을 투입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먼저 매입하는 적극적인 구제책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주택 보유 수가 아닌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국제 및 지방세가 부과되어 있어 한 번 채납되면 여러 곳에 보유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연쇄적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등을 주택 소유자가 아닌 국제 발생의 부동산별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징수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임차권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 사기범들이 당일엔 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입 신고일 당일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주택 보유 수 확인 등 사실 조사 및 채권 매입 여부 판단과 관련된 부동산 보유 수, 과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세 정보 열람·공개도 포함되어야 한다.

개별 세입자들 또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 통상 사람들은 임차 보증금을 전세금이라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전세권은 그 전세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점이 임차권과 차이가 있고, 결국 핵심은 등기 여부이다.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입자 중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결국 전액 반환이 된다는 점에서 최선의 피해 예방법이다.

또 만일 내일 당장 전세 계약한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국제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해서 현재까지 밀린 세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이 비슷하거나 80%를 넘어선다면 안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

기고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자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친구 가족과 오랜만에 만나 식사를 함께 했다. 아이는 배가 고파던지 밥을 허겁지겁 먹었다. 이를 지켜본 친구의 남편이 "혹시 엄마가 늘 굶기는 거 아니야?"라고 농담을 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중중 그렇죠. 뭐."라고 대답했다. 농담에 장단을 맞추는 한 말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아이 엄마는 마음이 크게 상하고 말았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키우느라 가끔 늦은 시각에 밥을 챙겨 줬던 게 늘 마음에 걸렸고, 아이에게 미안하던 참이었다. 그래도 남편은 그걸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도리어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놀린 것 같았다고 했다. 나는 남편에게 화를 내지 말고, 서운했던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으라고 충고했다. 이와 비슷한 일이 흔히 일어난다. 십 년 가까이 '실언'을 연구하면서 쉽사리 확인하는 것이 있다. 많은 이들이 가장 크게 상처받은 말을 대부분 가족, 또는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다고 지적한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소중한 사람에게 하는 말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고 공감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 보아 내가 설명 잘못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은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무참히 깨질 때, 사람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누가 잘못일까? 잘못된 기대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맥락을 놓치고 공감을 못한 사람이? 나는 후자라고 본다.

"우리가 그저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기대하는 동감은 절친한 친구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작다." 아담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공감해주지 않는 것보다, 내 편이라고 단단히 믿고 있던 친구나 가족이 공감해 주지 않을 때 실망을 넘어 화가 나는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기뻐하는 일이나 칭찬하는 일에 공감해 주지 않을 때보다, 슬퍼하는 일이나 분개하는 일에 공감해 주지 않을 때 사람은 더 크게 실망한다고 했다.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상처를 딴 말"을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들어보면, 뜻밖에도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내용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보일 때가 많다. 청바지를 절대 입지 않는다는 한 30대 여성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시장에 옷을 사러 갔는데, 맘에 드는 청바지가 있어서 입어 보려고 집어 들었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네가 입으면 찢어져.' 살췌고도 놀림당하는 게 싫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 옷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았죠. 내색은 안 했지만 그 친구가 정말 밉더군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론 청바지만 보면 그날 일이 생각나서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친구는 평소처럼 농담을 했을 텐데, 당사자에게는 가시가 되어 마음에 깊이 박힌 것이다. 이런 가시는 가해자가 빠지지 않으면 뽑히지 않는다.

사람은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한 말은 대부분 잘 기억한다. 반면 내가 상대를 아프게 한 말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아니, 아프게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 내게 상처가 된 말이 기억에서 잘 지워지지 않는다면, 상대를 만나 이리저리해서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말해 주는 게 낫다. 말을 해 주고 내 마음을 이해한 상대의 사과를 받아야, 내 상처도 치유된다. 당사자도 그런 실연은 되풀이하지 않는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5월 6일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드디어 왕관을 썼다. 왕실과 불화를 겪고 있는 둘째 아들 해리 왕자가 대관식에 참석할 지가 관심거리였다. 해리 왕자는 부인과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참석했다. 왕실 가족의 버거엄공 발코니 인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동안 해리 왕자는 넷플릭스 다큐와 자서전을 통해 왕실과 윌리엄 왕세자의 치부를 폭로해 왕실의 눈총을 받아왔다. 이미 열질러진 물이지만, 해리 왕자의 마음도 불편할 것이다. 남을 비판하는 말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기 쉽다. 가족이나 친구, 소중한 사람에게 하는 말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社說

누리호 발사 성공...전남 우주산업 활성화 전기로

고흥에서 날아오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 강국의 길을 열었다. 지난 25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는 고도 550km 목표 궤도에 도달해 국산 실용급 위성 여덟 기를 우주 공간에 안착시켰다. 한국은 지난해 2차 발사 성공으로 11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이름을 올리는데 이어 이번 발사까지 성공함으로써 우주 기술 강국임을 과시했다. 위성 모사체를 탑재했던 2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실용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아 운송 능력을 검증받았다. 우주 화물을 탑재·운반하는 능력을 선보임으로써 상용 우주선의 가능성을 연 것이다.

3차 발사는 민간 기업이 처음으로 발사 과정에 참여해 민간 주도 우주 개발 사업 시대의 첫걸음을 뗀다는 의미가 크다. 정부는 관련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기 위한 '체계 종합 기업'으로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했다. 이 기업은 2027년까지 총 네 차례 발사되는 과정에 참여해 설계·제작은 물론 발사 운영과 관

련된 기술을 정부로부터 이전받게 된다.

누리호 실전 발사 성공에 이어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로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구상을 추진하면서 전남이 우주 산업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흥은 지난 3월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발사체 특화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외나로도 일원에 조성되는 국가산단에는 2031년까지 우주발사체 조립·부품 제조 기업, 연구 기관이 입주하고 민간 발사장을 갖춘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또한 순천은 올촌 1산단에 발사체 단(段) 조립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고흥과 순천을 축으로 한 우주 발사체 연구 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예산 투입으로 우주 시대 경쟁력 확보를 꾀한다.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이미 반도체를 능가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남 지역이 우주산업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길 바란다.

균형 발전 거스르는 '한전공대 탄압' 중단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측에 대규모의 출연금 예산 삭감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캠퍼스 건설과 인력 충원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행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는 한전공대에 올해 한전 등 전력 자회사 출연금 예산 1588억 원 가운데 30%를, 내년에는 1321억 원 중 40%를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산자부의 이러한 행보는 사실상 한전공대에 대한 한전 등의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려는 수순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갑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이어 한전의 출연금 축소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의 치밀한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특히 출연금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산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등 여권과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전공대 측은 산자부의 요구에 따라 예산 삭감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캠퍼스 건설과 인력 충원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설 자체비 상승으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빠듯한데 삭감까지 되면 강의동과 기숙사 건립은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고, 인력 충원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전의 재정 악화를 출연금 축소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초래한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여론 호도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전공대는 기후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 양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설립됐다. 호남 배려를 내세운 서진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여론은 더 이상 한전공대 흔들기를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고흥 나로우주센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T-0'(Time Zero)에 화염과 함께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현지에서 또는 TV로 생중계되는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이들은 마음속으로 한결같은 응원을 했을 것이다.

한국형 발사체가 지구 궤도로 나아가는 시간은 짧으면서도 무척이나 길었다. '누리호'에 탑재한 크고 작은 여덟 개의 위성들을 분리하기까지는 15분 여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1993년 발사된 '과학 로켓 1호'를 감안하면 그로부 터 30년이라는 누적된

SF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를 떠올렸다. 1968년 영국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연출한 영화로,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목성 탐사 등 우주를 개척하는 미래까지 장대한 인류의 역사를 펼쳐 보여 준다. 영화는 무리지어 생활하는 털보숭이 초기 인류로부터 시작한다. 인류가 땅에 놓여 있는 뼈를 막대로 내려치자 튀어 오르는 돌이 화살이 되어 우주 공간을 이동하는 우주선으로 전환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뉴스페이스 시대

'누리호' 3차 발사는 민간 기업들이 우주로 나아가는 대장정의 시작을 알린다. 단지 우주 탐사가 아니라 우주를 창출하기 위한 도전 호' 3차 발사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인도에 이어 '우주 강국 G7' 반열에 올랐다. 또한 국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첫 걸음을 뗐다. 이번 '누리호' 엔진 개발과 부품 제작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300여 개의 민간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누리호' 3차 발사는 민간 기업들이 우주로 나아가는 대장정의 시작을 알린다. 단지 우주 탐사가 아니라 우주를 창출하기 위한 도전 호' 3차 발사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인도에 이어 '우주 강국 G7' 반열에 올랐다. 또한 국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서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의 첫 걸음을 뗐다. 이번 '누리호' 엔진 개발과 부품 제작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300여 개의 민간 기업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and other publication details.